

## 교회소식 Bekanntmachungen der Gemeinde

마인츠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ir heißen alle herzlich willkommen und segnen im Namen des Herrn.

- 다음 주일 예배는 청소년부와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전교인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 2022년 교회 요람이 준비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태성 장로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8월에는 번역부와 성가대가 휴가를 갖습니다.
- 장재성 전도사 휴가(8/1-13), 담임목사 휴가(8/15-23)
- 여름 방학과 휴가 기간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한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 코로나 양성이 나오신 분들은 위기관리팀(이정수 장로, 김민성 집사)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교인 수련회(10/26(수)-29(토)) 신청은 구역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 회복(예배의 회복), 강사: 이승렬 목사(DMF회장)
  - 장소: Bibel-und Erholungsheim HOHEGRETE in Pracht
  - 회비: 성인 100유로, 청년(학생) 50유로, 청소년과 주일학교 35유로, 영유아부 25유로

요한복음 13:13-14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Johannes 13:13-14 Ihr nennt mich Meister und Herr und sagt es mit Recht, denn ich bin's auch. Wenn nun ich, euer Herr und Meister, euch die Füße gewaschen habe, so sollt auch ihr euch untereinander die Füße waschen.

## 섬김이

담임목사 한성호  
교육전도사 장재성  
시무장로 소병찬, 이정수, 이태성

## 예배 및 봉사구역

날짜	기도	안내
07.31	이승기	
08.07	이민성	
08.14	김유진	
08.21	우승혜	

## 후원 선교지

- 키르기스스탄(다니엘 P)
- 코소보(S00)
- 독일 쾰른(N00)
- 케냐(L00)
- 베트남(L00)
- 타지키스탄(L00)
- 마다가스카르(B00)

## 온라인 헌금 안내

IBAN: **DE78 5519 0000 0962 2740 15**  
BIC: MVBMD55

:: 온라인 헌금 시 입력 항목 ::  
십일조 - Zehnte  
감사헌금 - Dankopfer  
주일헌금 - (Sonntags) Kollekte  
월경헌금 - Monatskollekte  
선교헌금 - Spende f. Mission  
건축헌금 - Spende f. Kirchenbau

\*온라인 헌금은 비교란에 위 항목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인츠 중앙교회

AD.1986 Evangelische Kirchengemeinde  
Mainz Chung-Ang e.V.

원로목사 박익석  
담임목사 한성호

모양실. 06131 380 9981

Berliner Str.37 55131 Mainz  
www.machung.net

2022년 표어

힘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9)  
Darum suchen wir auch unsere Ehre darin, daß wir ihm wohlgefallen, sei es daheim oder nicht daheim. (2.Korinther 5:9)

제37권 31호 2022년 7월 31일

## 주일예배

1부 12:00

인도자: 한성호 목사

찬 양	Lobpreis		찬양부
※ 묵 도	Eingangsgebet		다함께
※ 찬 송	Lobpreis	468 장	다함께
※ 신앙 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함께
성시 교독	Wechsellesung	68 문	인도자
대표 기도	Gebet		이승기 안수집사
봉 헌	Kollekte	211 장	다함께
성경 봉독	Schriftlesung	요한복음 13:31-35	인도자
찬 양	Lobpreis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성가대
말씀 선포	Predigt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성호 목사
광 고	Abkündigungen		인도자
※ 찬 양	Schlusslied	사랑의 송가	다함께
※ 축복 기도	Segen		한성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 예배안내

• 주일 1부예배	주일 12:00 본당	• 주일학교예배	영유아/유치 유년/초등	주일 12:00 별관 주일 12:00 별관
• 수요 예배	수요 20:00 본당	• 청소년부예배		주일 12:00 별관
		• 청년부 예배		금요 20:00 본당

##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간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그는 정해진 길을 간다. 그 길은 그가 존재하기 전에, 그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 속에만 있었을 때 이미 그를 위해 정해졌다.

어떤 사고가 갑자기 그를 덮치고 불행이 살금살금 그의 길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불운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은밀한 각본을 읽을 수 없고, 그분의 최종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연과 불운은 영원히 사라진다. 우연과 불운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들이 새창조의 아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 역시 자연의 법칙에 굴복해야 하기에 질병이나 노화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구나'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내리는 다른 모든 판단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속는 것이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그의 발걸음을 정해 놓으셨다고 확신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해 놓으신 시간보다 한 시간 앞서 그가 세상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그분이 그를 이 땅에서 데려가기 원하시는 때를 한 순간이라도 넘길 수 없다. 그는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떠돌이거나 시간과 공간의 업동이가 아니라 주님의 성도요 그분이 특별히 돌보시는 사랑받는 자이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며, 어둡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을 감싸주기 위해 만든 위로의 교리도 아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리가 무너지고 만다. 이것은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공정하게 요약한 것이므로, 우리가 진리의 성경의 다른 모든 교훈들처럼 기쁨과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기쁨 안에서 안식하노라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진리와 능력에 의지해 복된 자가 되려 하노라

A.W. 토저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에서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마인츠중앙교회는 주님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힘쓰는 예배공동체입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더불어 행복한,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공동체  
마인츠  
중앙교회는

## 시련이 주는 축복

시련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며,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J.C. 라이

*Trial are intended to make us think,  
to wean us from the world, to send  
us to the Bible, to drive us to our  
knees.*

- J.C. Ryle

우리는 때로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치고 피곤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과 경계가 풀렸을 때 여러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  
사인을 주시며 영적인 내리막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흔들며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 기도제목

1.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진학과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시오.
2. 산모들(유생, 김유진, 이민지 집사님)과 태아들을 더욱 건강하게 하옵소서.
3. 방학과 휴가기간 모든 성도들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4. 안수집사로 피택되신 고광진, 배형만, 이재현 집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5. 전교인수련회를 위한 기도  
코로나가 수련회를 위협하고 방해하지 않도록 잠잠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당회와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고광진 집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6.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멈추게 하옵시고 코로나와 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인류에게  
공황을 베푸소서.
7. 선교사님의 삶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소명으로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주시고 모든 필요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 우리, 교회 Vision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공동체가 됩시다.